



나주시, 농기계 현장교육 실시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현재까지 사업소는 농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친 농기계 안전운행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모내기 작업 시 주로 쓰이는 트랙터 및 이앙기 등 농기계 운전 조작법과 간단한 응급 점검?정비 실습을 위주로 농민들의 농작업 안전 지도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소는 농번기철을 제외, 올 연말까지 총 30회에 걸쳐, 임대사업 활성화에 따른 월별 임대 사용이 가능한 기종 위주의 농기계 특성에 대한 교육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신규농업인, 여성·고령 농업인들의 농작업 능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

**트랙터 · 이앙기 등 농기계 운전조작법 등 실습
현장 교육 30회 계획…농작업 능률 향상 도모**



신규농업인, 여성·고령 농업인들의 농작업 능률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동수동)과 분점 3개소(문평, 금천, 남평)에 기계지원팀을 투입, 오는 6월 말 까지 3개월 간 평일(09~18시), 주말(09~18시)에 비상근무제에 돌입했다.

가장 분주한 농번기 시즌인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농가 편의 향상을 위해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도 임대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농기계 취급 조작 미숙 및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장 교육을 강화해갈 것”이라며, “분주한 영농기 농작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농기계 임대 업무와 농가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순천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원

시비 3억 원 확보 추가 지원

순천시는 태풍·우박·동해 등의 해재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확대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 기입농가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기입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입대상 품목이 53품목에서 57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으로 확대되고 전년도 무시고 농기에 대해서는 보험료 5%가 할인된다.

품목별 기입 시기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벼섯재배사 및 벼섯

작물 11월 30일까지, 벼 6월 29일 까지(이양불능피해보장은 8일까지), 고추 25일까지이며, 고구마·옥수수·불감자는 5~6월, 콩·참다래 6~7월, 배·매실·복숭아·마늘·양파·인삼 등 10~11월에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 기입하면 된다.

친환경농축산과 유희성 과장은 “올해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해 기입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20% 중 약 3%를 추가 지원해준다”며 “많은 농가들이 기입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품목별 기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험에 기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생강’ 농가소득 효자작목 역할 톡톡

지난해 구축한 생산기반시설 토대 가공·브랜드화에 집중 투자

광양시가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생강이 농가의 소득효자작목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생강은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밭에 내어다 심어지고 있으며, 옥룡면을 중심으로 18㏊에서 재배되고 있다.

2013년부터 옥룡면의 소득작목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광양생강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281t을 생산됐다.

또 지난해 11월 8일 도매가로 10kg 기준 50,000원의 최고가와 평균 43,600원으로 전국 평균 32,300원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농가의 소득작목으로 톡톡히 해내고 있다.

시는 2016년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생강 육성 계획이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고, 2019년까지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생산 위주의 사업으로 고품질 생강 재배단지 조성, 생강

비기암 시설재배 실증시험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 생강연구회 회원, 동협,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강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3분기 지역협의회를 열고, 광양생강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고품질 생강 가공센터 증축과 생강 재배단지 조성 실증시험, 브랜드 육성 규격박스 제작, 생강 수확 편이장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은 “생강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6차산업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특화작목을 넘어 전국 최고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자연휴양림, 산림치유와 유아숲 체험 운영

숲속의집(숙박)과 캠핑장으로 알려진 순천자연휴양림에서는 작년 치유의 집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고 지난 3월부터 성인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과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유아숲지도사가 아생화 꽃다발 만들기, 민들레 관찰하고 씨앗 날려 보내기 등 복 아생화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또한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트리하우스, 거미집, 인디언집, 외출오르기, 출렁다리, 모래놀이터 등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있어 학습효과도 높다.

성인을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치유의집과 생태숲에서 산림치유지도사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치유의집 내부에는 명상

할 수 있는 공간과 협압측정기, 인바디 등 건강측정기와 암마기, 족

육기 등이 비치되어 있다.

프로그램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숲속의집과 국민여기캠핑장은 사전 인터넷 예약([순천시 홈페이지](#)→바로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내달부터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 시행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

광양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광양~여수~순천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과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가 운영된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광양~여수~순천 광역시내버스를 다가오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광역무료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 방식은 기존의 하차태그 방식과 동일하며, 버

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 하차단말기에 체크한 후 60분 이내에 환승할 경우 광양, 여수, 순천 시내버스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추가요금 없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광역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상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야 일상하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 대중교통활성화를 도모하고,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무료환승 시행일에 맞춰 ‘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를 운영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아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